

## C-2. 탈단백우골과 상피하 결합조직 유경판막을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

민형기\*, 권영혁, 박준봉, 허 익, 정중혁, 이동열

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치주과학 교실

### 배경

발치 후 치조골의 흡수로 인하여 잔존 치조제의 폭경과 높이가 감소한다는 연구 보고가 되어 왔다. 따라서 발치 후 대개의 경우 치조골의 흡수에 의한 치조골 및 변연 치은의 높이와 폭경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치조제의 결손은 가공치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자 할 때, 심미적 문제를 유발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 어렵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치와 동시에 치조제를 보존하는 여러 가지 수술방법이 소개되었다. 그 중에서 골이식재와 유경판막을 이용한 술식은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, 장기간에 걸쳐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보고되었다. 이에 저자들은 발치 후 즉시 탈단백우골과 상피하 결합조직 유경판막을 이용하여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치험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### 재료 및 술식

#22은 외상성 교합을 동반한 급진성 치주염 및 정출로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를 계획하였고, 이후 #21~#23까지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. 전층 판막을 형성하고, periosteum을 이용하여 비외상성으로 발치를 하였으며, 발치와의 모든 연조직을 철저히 소파한 후 발치와에 탈단백 우골을 충전하였다. 구개부에서 상피하 결합조직의 유경판막을 형성하여 골 이식재 위에 위치시킨 후 봉합하였다.

### 결론

#22의 치조제 보존술을 통하여 수직적으로는 5mm, 수평적으로는 1mm의 증가를 가져와 심미적인 형태의 연조직 외형을 형성할 수 있었고, 차후 심미적인 보철을 가능하게 하였다. 결론적으로 탈단백우골과 상피하 결합조직 유경판막을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은 수술의 예견성이 높으며, 심미적 보철물 제작에도 유리하고, 주변 조직과의 색조 조화도 우수한 임상적 결과를 나타냈다.